



미 증시, 인플레이션 지표 안도감에도 차별화 장세

미국 증시 리뷰

11 일(수) 미국 3 대 증시는 7 월 소비자물가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고점 도달 인식 확대에도, 일부 연준 위원들의 조기 테이퍼링 발언, 백신 부작용 논란이 부각된 모더나(-15.6%) 등 바이오 업종을 중심으로 한 성장주들의 차익실현 물량 등으로 혼조세 마감(다우 +0.6%, S&P500 +0.3%, 나스닥 -0.2%).

미국의 7 월 소비자물가는 5.4%(YoY)로 전월(5.4%)과 동일했으며, 예상치(5.3%)를 소폭 상회. 가격 변동성이 큰 에너지 및 식료품을 제외한 균원소비자물가는 4.3%로 전월(4.5%)에 비해 둔화됐으며 예상치(4.3%)에 부합. 지난 5~6 월 소비자물가 급등을 견인했던 중고차 가격 급등세(10.5%→0.2%MoM, 45.0%→41.7%YoY)가 완화되는 등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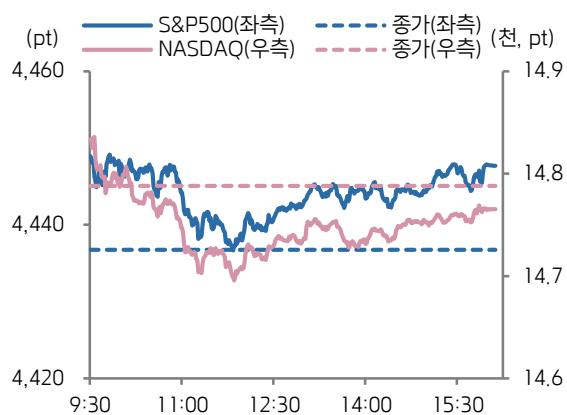
한편, 미국 상원에서는 민주당 주도하에 공화당의 동의없이 과반수만으로도 3.5 조달러 규모의 복지(교육, 기후변화 등 포함)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권을 발동하는 예산결의안을 가결(예산결의안 통과→예산조정권 통과→예산안 통과 순으로 진행 예정). 통상 예산결의안에는 대략적인 목표와 한도만 설정하는 만큼, 금번 세부 예산안은 9 월 15 일에 마련하여 상원 표결을 진행할 예정.

미국 증시 평가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3 개월 연속 5%대를 기록하긴 했으나,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수준이었음. 또한 중고차 가격, 운임료 등 공급망 문제로 영향을 받았던 품목들의 급등세가 진정 됐음을 감안 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고점을 터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증시의 위험선호심리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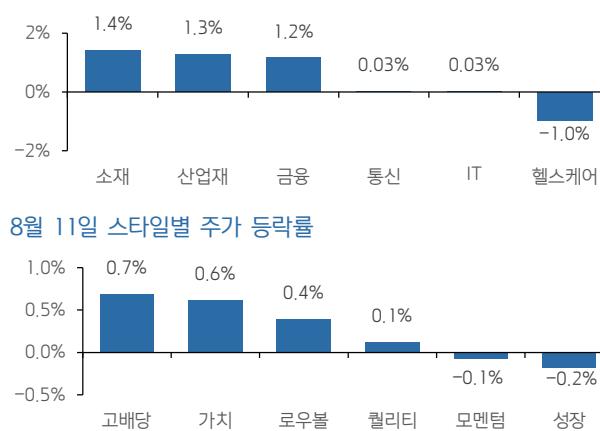
물론 일각에서는 외식, 레저, 휴발유 등 수요 급증과 관련된 품목의 물가가 급등했다는 점을 근거로 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또한 지난주 7 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이 호조세를 보인 이후에 연준 내에서 조기 테이퍼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 시, 금번 소비자물가 결과를 놓고 일시적 or 추세적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판단 변화 여부가 중요해졌다고 판단.

S&P500&NASDAQ 일중 차트(8월 11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8월 11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27%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16%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54.5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전거래일 낙폭 과도했던 반도체주들의 주가 반등 여부
2. 모더나발 백신 부작용 악재로 인한 국내 바이오 업종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 여부
3. 옵션 만기일에 따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변동성 확대 가능성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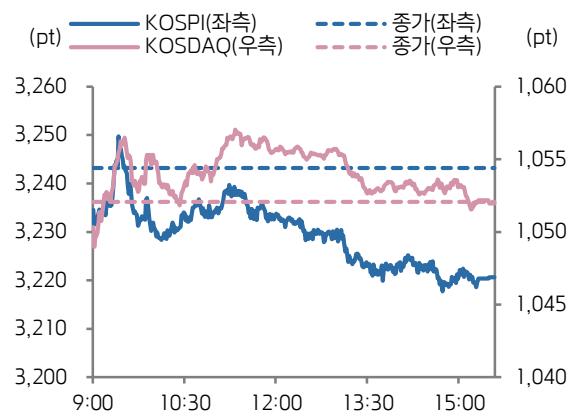
11 일(수) 코스피는 미국 상원의 1 조달러 인프라투자 통과 소식에 따른 경기 민감주 강세, 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바이오주 강세에도, 미국 소비자물가 발표 경계심리 속 메모리 업황 둔화 우려 확산에 따른 삼성전자(-2.1%), SK 하이닉스(-6.2%) 등 반도체주 급락 충격으로 하락 마감(코스피 -0.70%, 코스닥 -0.01%). 업종별로는 은행(+3.7%), 의료정밀(+3.3%), 의약품(+2.3%) 등이 강세, 전기전자(-2.3%), 서비스(-1.5%), 전기가스(-1.2%) 등이 약세.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 6,137 억원, 1,913 억원 순매도, 개인은 1조 7,848 억원 순매수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 안도감 속 선진국 경제 정상화 기대감 재부각 등으로 반등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 미국 소비자물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물 수요 회복세는 탄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노이즈를 내고 있지만) 연말 집행이 예상되는 미국의 인프라투자 기대감도 유효한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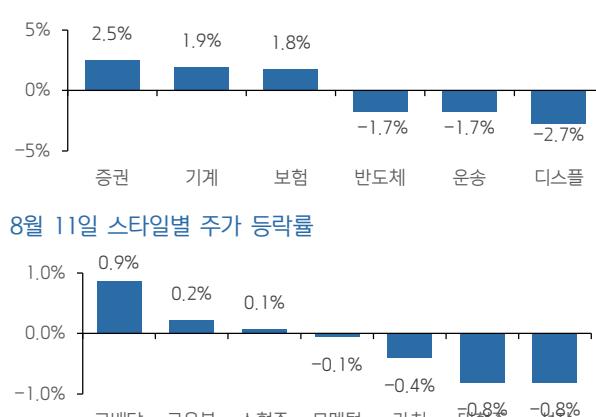
한편, 전거래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최상위 대형주들의 주가 급락세는 과도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금일 반도체주들의 주가 반등세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 그럼에도 여전히 반도체 업황 둔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단기 주도주로 부각됐던 제약 및 바이오 업종들도 모더나 발 악재로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시 전반적인 지수의 반등 탄력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또한 옵션 만기일인 만큼 장중 외국인과 기관의 현선물 수급 변동성 확대도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8월 11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8월 11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